

#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明末 山東의 사회 풍속 일면 고찰

-海路 朝天日記와 漢詩를 중심으로-

劉寶全\* · 邵双双\*\*

## 目 次

1. 서론
2. 조선 사신들이 기록한 복식 풍속
3. 조선 사신들이 기록한 경제생산의 풍속
4. 결론

## 1. 서론

책봉 조공의 체계 아래, 명나라는 늘 조선을 자기의 우호 번국으로 여겼다. 조선도 빈번히 중국으로 사신을 보냈다. 조선 사신들이 중국으로 들어온 노선은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遼東半島를 거쳐 온 陸路이고 다른 하나는 黃海와 渤海를 거쳐 온 海路이다. 명나라 말기에는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쫓기하였기 때문에 陸路 朝天路가 끊기게 되는 바람에 자연스레 海路가 중·조 양국의 사신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가 되었다.

명 말기에 해로가 최초로 열린 것은 『明史·朝鮮傳』에 의하면 明熹宗 天啓(1620~1623) 원년으로, “천계 원년 8월에 조선의 貢道를 改定하여

\*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 교수(제1저자).

\*\*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 석사과정 수료.

발해를 경유해서 등주를 걸쳐 京師까지 직접 도달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海路로 중국으로 온 조선 사신들은 山東의 登州(지금은 蓬萊라고 함)에 상륙한 다음에 서쪽으로 濟南, 德州 등 山東의 내지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 北京에 들어갔다. 趙澂의 기록에 의하면, “길은 登州에서 靑州까지 620리는 동쪽에서 서편으로 가고, 청주에서 濟南府까지 350리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가고, 제남부에서 德州까지 260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덕주으로부터는 배를 타고 天津까지는 물길로 590리이니 서남쪽에서 동북편으로 가고, 천진으로부터 北京까지는 육로로 250리이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천진에서부터 수로로 통주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sup>1)</sup> 이 길은 당시 등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驛路 노선과 일치한다.<sup>2)</sup> 山東은 海路 사신들에게 중국에 대한 첫인상을 남겨 주었다. 山東을 거치면서 천여 리를 걷는 도중에서 그들은 山東의 정치, 경제, 사회, 풍속, 자연 환경에 대해 더욱 직관적이고 심층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에 조선 사신들이 海路로 중국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체로 1621년부터 1636년까지의 사이였다.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登州에서 상륙하고 山東을 거쳐 燕京으로 갔다는 사절단에 관한 기록은 27번이나 있으며 지금까지 남겨놓은 朝天錄은 31종이나 된다. 그들이 남긴 朝天錄에는 山東에 관한 기록이 아주 풍부하고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는 또한 山東의 지방 역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山東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海路 朝天錄에 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海路 朝天錄 텍스트에 대한 연구로서 사신들이 남긴 海路 사행의 과정, 노선, 일정, 선박, 인원과 규모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sup>3)</sup>

1) 趙澂(2000), 139쪽.

2) 명나라 말기 山東과 北京 지역의 驛路 노선도는 <부록>을 참조.

3)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耿升외 2인(2009); 陳尙勝(2005); 孫衛國(2009);

‘航海朝天圖’가 정리, 출판됨에 따라, 사행 記錄書에 대한 연구도 점차 많아졌다.<sup>4)</sup> 이외에 朝天錄의 판본 문제도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sup>5)</sup>. 둘째, 한중 관계사의 관점에서 海路 朝天錄을 사료로 이 시기 양국의 관계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登州와 한·중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제일 많은 편이다.<sup>6)</sup> 셋째, 문학적 관점으로 조선 사신들이 창작한 시가와 중국 관리, 문인들과의 수창시를 연구함으로써 명나라 말기 한·중 간 문화 교류를 해석하는 것이다.<sup>7)</sup> 기존 연구들에는 登州 외에 기타 山東 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주 드물었다. 특히 海路 朝天錄을 통해서 당시 山東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적 저술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山東에 관한 이들 기록의 가치에 대해 아직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분명히 현금의 朝天錄 연구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다. 명나라 말기 山東 지방 역사와 관련된 朝天錄에 대해 더 심층적 정리와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朝天錄 가운데 山東의 사회 풍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초의 航海朝天錄日記와 조선 사신들이 창작한 시가를 분석 자료로 하고, 중국 국내의 문헌도 참고하여 명나라 말기 山東의 물질 풍속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山東 지방의 복식 풍속, 경제 생산 풍속 등 방면에서의 사회 풍속을 연구함으로써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山東 사회의 풍모를 밝힐 것이다.

葉泉宏(2003);林基中(2004);박현규(2011)를 들 수 있다.

4)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술은 다음과 같다. 정은주(2007);정은주(2008);최은정(2005).

5) 海路 朝天錄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黃修志(2011);임기중(2009).

6) 耿升(2009)과 陳尙勝(2005)이 편찬한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이 거의 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이다. 이 밖에 崔菊花(2012) 등이 있다.

7) 劉曉東(2013);李學堂(2013);王玲玲(2013);권혁래(2010).

## 2. 조선 사신들이 기록한 복식 풍속

물질 풍속은 사회 풍속의 일부이며 의, 식, 주, 행 등 물질생활 방면의 풍속 및 생산 교역의 풍속을 포함한다.<sup>8)</sup> 복식은 인간만의 특유한 생활 기능이며 인류의 지혜로운 창조물이기도 하다. 복식을 통해서 일정 지역의 생활 양상, 풍속과 정신 풍모 등을 알 수 있다. 조선 사신들이 남긴 朝天錄 중에서 복식과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趙澱(1568~1631)의 『燕行錄』과 崔溥(1454~1504)의 『漂海錄』은 복식 풍속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명나라 말기 山東 지역에 새로운 복식 풍습이 드러나고 전통적 복식 등급 제도가 교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 (1) 참람하고 사치스러운 명나라 말기의 복식 풍속

趙澱은 조선 왕실이 파견한 冬至聖節使로서 『燕行錄』(『癸亥水路朝天錄』이라 칭하기도 함)에 1623년 7월부터 1624년 4월 사이의 사행을 기록하였다. 그중에서 중국의 복식에 관한 기록은 남녀의 복식, 머리 장식품, 화장, 纏足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망라하여 당시의 복식 풍속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趙澱이 사행하는 과정에서 본 山東 지방의 남성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남자는 안에 아주 짧은 속옷(襖子)을 입고 중간에도 짧고 좁은 옷(夾衣)을 입으며 겉에 道袍를 입었다.” 여성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sup>9)</sup> “여자는 안

8) 풍속은 풍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국내외의 풍속 연구자들은 풍속의 분류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물질 체계에 속하는 의, 식, 주, 행 등의 풍속과 생산교역과 관련된 풍속이다. ②행위 체계에 속하는 세시풍속, 가족이나 친척 등과 관련된 풍속, 문학 예술적 풍속 등이다. ③관념 체계에 속하는 신앙, 무술 등 풍속이다. (胡申生(1992), 1~3쪽 참조).

에 胸背(등과 가슴을 가리는 것)를 하고 가운데 짧고 좁은 저고리(夾衣나 襦衣라 함)를 입었으며 겉에는 색깔이 있는 장옷(長衣)을 입었는데 좌우 옆구리로 나누어서 고름을 매었다. 소매의 넓이는 한자 남짓하고 아래는 홀바지(單袴)를 입었는데 반드시 색깔 있는 천(色段)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趙澱은 남자들의 복식에는 襖子, 夾衣, 道袍가 있고 여성들의 복식은 비교적 복잡한데 胸背, 夾衣이나 襦衣, 長衣 등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면, 명나라 말기 山東 지방의 남녀 복식은 과연 趙澱의 기록과 마찬가지로일까?

실제로 ‘襦衣’, ‘襖子’와 ‘夾衣’, 이 세 가지 복식의 양식은 비슷하다. 기록에 의하면<sup>10)</sup> 夾衣의 길이는 ‘襦衣’, ‘襖子’의 길이와 비슷하고 그들은 다 안감이 있는 겹옷이며 가을과 겨울에 많이 입는 옷이었다. 趙澱이 기록한 이 세 가지 옷은 다 허리까지 내려온 짧은 옷이다. ‘單袴’, ‘胸背’, ‘長衣’ 등은 명나라 여성들의 복식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의로 바지를 입는데 여자는 바지에 치마를 덧입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홀바지를 입었다”라고 기록하였다. 趙澱은 ‘일하는 노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늙은 여자들은 가끔씩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고 있었다.”<sup>11)</sup> 여기서 말하는 ‘노파’는 시녀이었을 것이다. 趙澱이 만난 그 시녀는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만 입었다. 북방 지역의 여성이 입는 치마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 天足(纏足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발)을 가리기 위해서 긴 치마를 입는다고 했다<sup>12)</sup>. 道袍는 당시 남자들이 주로 입는 외투인데 원래 승려와 도사들이 입는 것으로 길자락과 깃이 있고 소매의 통이 크고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온 옷 스

9)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30쪽.

10) 『太平御覽』, 『服章部』十二.

11)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8쪽.

12) 陳寶良(2004), 222쪽.

타일이다.<sup>13)</sup> 道袍는 명나라 때 사대부나 서민 남자들 중에서 모두 유행하는 스타일이며 괴상망측한 차림새(服妖)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명나라 때 남녀 복식이 서로 어긋난 점을 보여 주고 전통적 예법이 타파되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외에 趙濶은 당시 아동들과 여성들의 머리 장식품도 기록하였다. “어린이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겨우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만 남겨두어서 검은 천으로 두건(帕)을 만들어 머리를 둘러쌌고, 여자는 여러 색으로 된 비단으로 역시 두건을 만들어 머리를 썼다.”<sup>14)</sup> 여성들이 머리를 두르는 ‘帕’는 ‘額帕’이며 명나라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머릿수건이다. 넓이가 2촌쯤이 되고 길이는 넓이보다 상당히 긴 천으로 이마를 두른 후 남은 부분은 뒤로 내려 재단하지 않은 두건이다. 額帕는 머리를 묶는 것으로서 장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명나라 때 매우 유행하였다.<sup>15)</sup> 색깔도 까만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도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 조선인 崔溥는 弘治 원년인 1488년에 제주도에서 浙江으로 표류되어 台州府 臨海縣 부근에서 상륙한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 압록강을 거쳐 조선에 돌아갔다. 그는 『漂海錄』에서 명나라 사람이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두른다고 기록하였다. “양털 모자를 쓰거나 까만 비단 모자나 馬尾帽를 쓴다. 수건으로 머리를 싸는데 그 수건은 각이 없는 黑巾도 있고 각이 있는 것도 있다. 관리는 비단 모자를 쓴다. 상주는 하얀 천으로 만든 수건을 쓴다.”<sup>16)</sup> 이를 통해서 명나라 때의 머리 장식은 사용한 재료와 스타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燕行錄』에서 趙濶은 그가 본 여자들이 “키 큰 사람은 거의 없고 대체로 몸이 아담하고 작았으며 옷은 그들의 몸에 맞도록 입었다.”<sup>17)</sup>라고 하

13) 高春明(1997), 147쪽.

14)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9쪽.

15) 陳寶良(2004), 249쪽.

16)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 598쪽.

였다. 당시 여성들은 그리 키가 크지 않지만 입는 옷은 예법에 맞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이 입는 옷 중에서 한 가지는 趙濶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左衽’ 옷을 입는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 여자는 옷고름을 왼쪽에 매는데 이는 예로부터 齊나라나 魯나라의 풍속이 그러했는가? 괴이한 일이다.”<sup>17)</sup> 그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趙濶이 일반적 유학자와 마찬가지로 左衽을 전통 복식에 어긋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본다. 전통적 유교에서는 야만인들이 左衽을 입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左衽은 야만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左衽은 또한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사는 사람과 정반대이며 左衽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交領右衽(Y형이 된 깃)은 왼쪽의 깃이 오른쪽 깃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한족 복식의 기본적 특징이었다. 한족 사람은 左衽 즉, 오른쪽 깃이 왼쪽 옷 위에 있는 복식은 죽은 자나 야만인들만이 입는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禮記·喪大記』에서는 “喪服은 다 左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孔穎達은 “衽은 깃이다. 오른쪽으로 여는 이유는 왼손으로 편하게 풀 수 있기 위해서이다. 죽은 자의 깃이 왼쪽으로 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다시 깃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sup>19)</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명나라 여성들의 복식 중에는 左衽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스타일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명나라 초기에 朱元璋이 등극한 후 바로 “唐의 복식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당나라 때 북방 胡人들의 옷을 모방하기 때

17)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9쪽.

18)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9쪽.

19) 『十三經注疏·禮記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1580쪽.

문에 左衽은 한때 유행하였다. 그 다음에는 조선 중기 유명한 문신 申欽(1566~162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가 있다. “오른쪽 옷깃을 밖으로 내어 여미고, 머리를 엇갈려 땀고, 껍뻑거리는 오랑캐의 말씨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자는 원나라의 이러한 네 가지의 미개한 풍속을 고치지 못하고 그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잘못된 것이다.”<sup>20)</sup> 사실 원나라 때에는 左衽과 右衽이 다 있으므로 양자의 구분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원나라의 풍속을 따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sup>21)</sup>. 셋째, 左衽을 숭상하거나 右衽을 숭상하는 관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고대의 이론으로 左衽을 보는 시각은 이미 시대에 뒤쳐진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左衽은 당시 사람에게는 이미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明 孝宗 弘治(1488~1505) 이후에 북방 주민은 복식에 있어서 ‘胡風’을 숭상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 취향에 따라 생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崔溥는 『漂海錄』에서 당시 중국의 복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강남 지역 여성들의 복식은 “다 左衽”이라고 하고 강북 지역 “滄州 이북에는 左衽도 있고 右衽도 있다. 通州 이북에는 다 右衽이다.”<sup>22)</sup>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참조해 보면 趙澱이 山東에서 본 여성들이 左衽을 입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란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趙澱은 조선의 사신으로 유교 윤리관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통일신라 때 신라의 복식은 기본적인

20) 申欽, 『象村稿』, 권36, 『書許魯齋文後』.

21)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明太祖 주원장이 나라를 세운 후 胡服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胡服은 원나라 복식이며 左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나라 때 한족 사람의 옷차림을 기초로 하여 명나라의 복식 양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명나라 여성 복식 중에 左衽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옷 모양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담겨진 원시적 의미는 이미 사회생활에 융입되어 사회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저자는 山西 陽城에서 출토된 明代 여성의 畫像을 예로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설명하였다. 王統斌(2011), 24쪽 참조.

22)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 598~599쪽.

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sup>23)</sup>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官服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복식 예법을 따르는데 民間服飾인 한복이 정형화되었다. 남녀 복식은 다 안감과 겉옷이 있다. 남성은 주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襦袴制를 사용하였는데 통이 넓은 상의와 바지인 것이다. 여성은 상의로 襦衣를 입고 하의는 바지와 치마를 입었다. 상의는 Y형의 깃이고 右衽이다. 表衣는 袍衣와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趙澏이 天朝에서 左衽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2)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養漢者’와 纏足 풍속

左衽 뿐만 아니라 조선 사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다른 한 가지는 ‘養漢者’이다. 趙澏의 ‘養漢者’들이 짙은 화장을 하는 기록으로 추측해 보면 그들은 사회 지위가 낮은 창녀이었을 것이다. “養漢者는 일반적으로 상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빗은 머리에 늘 꽃을 꽂았으며 옷 빛깔은 선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다 되었어도 얼굴에 연지와 분을 발랐으며 발에 신는 버선과 종아리에 매는 行纏은 색이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sup>24)</sup> 명나라 때 官妓 외에 매음을 하는 일반적 여성들을 養漢者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養漢者’가 많이 언급된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李睟光(1563~1628)은 1614년에 완성된 『芝峯類說』 권18인 『技藝部·妓樂』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중국과 조선에서 창녀를 養漢者로 부른다. 그들의 용모에 따라 몸값이 다르다.” 즉, 당시 중국에서 창녀를 養漢者라고 하고 창녀의 용모에 따라 오십쟁이는 돈을 냈다는 것이다. 1832년에 청나라를 사행한 金景善(1788~?)은 『燕輶直指』에서 『老稼齋燕行日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豊潤縣 근처에 있는 古

23) 竺小恩(2013) 참조.

24)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8~329쪽.

城 榛子店은 娼으로 유명하다고 기록하였다. “이곳은 본디 기생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康熙 때에 천하의 창기를 엄금하여 板橋, 揚子江 등의 娼樓, 妓館들이 모두 쏙밭이 되었다. 오직 이곳만은 멸종되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養漢的이라고 하는데, 꽤 면목을 갖추었다. 또 악공들도 모여들어 지금까지 있다 한다.”<sup>25)</sup> 명나라 때 榛子店, 板橋, 揚子江 등지에 청루가 아주 많았다. 康熙 때에는 창기를 엄금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청루는 다 황폐되어 버렸지만 榛子店만은 그 유일한 곳으로 남았다.

養漢者 중에 일부 사람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창기가 되어 버렸다. 왜 그랬을까? 조선 사람 李璽(1522~1600)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養漢的이라는 명칭이 중국에서는 유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대개 중국의 養漢的이라는 것은 특히 恒山·岱山の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인데, 당초부터 금수 같은 행실을 즐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러주는 부모가 없고 의탁할 만한 친척이 없으므로, 추위와 굶주림에 부대끼다가 서로 모여서 머리 빗고 화장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계책을 삼은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자가 본남편이 있고 또한 높고 낮고 험하고 중한 값이 있어, 남편이 허락하지 않거나 값이 자기에게 적당하지 않으면 또 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오히려 저들이 우리보다 낫다.”<sup>26)</sup> 李璽는 중국의 養漢者라는 풍습이 恒山과 岱山 지역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였다. 恒山과 岱山은 지금의 山西와 山東 지역이다. 여성들은 의지할 부모나 친척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거나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당시 조선에는 養漢者라는 명칭이 없지만 官妓나 私妓는 “밤낮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취한 듯 미친 듯하여”, “우리나라의 음탕한 풍습이 중국보다 심하다 하겠다.”<sup>27)</sup> 이래서 趙澱보다 일찍 명나라를 사행한

25)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71, 132~133쪽.

26) 李璽, 『松窩雜說』.

李民宥(1570~1629)은 山東 지방은 “여항 천민집의 여성들은 거의 문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는 遼西일대의 풍습과 매우 다르다. 齊魯의 미풍양속은 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sup>28)</sup>라고 기록하였다. 즉, 중국에는 養漢者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문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나오기만 하면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sup>29)</sup> 중국의 미풍양속은 조선 사신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할만 했다.

이외에, 중국 여성들의 풍속에 관한 조선 사신들의 기록 중에는 纏足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趙澱의 기록에서 “(여성) 그들의 발은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작았는데, “옛날 명나라의 황제가 여자의 발을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베로 발을 동여매는 纏足습을 내렸는데 이리하여 여자들의 발이 자라지 못하고 그 때문에 여자들이 뒹뒹 잘 견지 못하여 오랑캐들이 난리를 일으켜 중국에 들어와도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sup>30)</sup>라는 내용이 있다. 趙澱이 중국에서 본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발이 작다. 하지만 趙澱은 朱元璋이 여성에게 纏足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전통적 설을 의심했다. 그는 이 설에 대해 “그러나 그 말은 황당하여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설은 거짓말이거나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명나라 때 纏足이 굉장히 유행하였다. “명나라 때 纏足은 대유행했다. 纏足은 사회지위와 등급의 상징이 될 정도였다. 이를 통해서 그때는 纏足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纏

27) 前掲書.

28)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4, 335쪽.

29) 이 점에 대해 趙澱은 ‘女子則居內, 絕不得出入, 只管造鞋刺繡胭脂粉之事. 或有相逢於村落者, 必以黑繪掩面. 且或立於門外者, 見行路人, 必閉門而入, 背面而立.’라고 말했다. 趙澱, 『燕行錄』, 1623년 윤10월 20일.

30)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29쪽.

足할 때 꼭 三寸을 요구하였다. 여자의 발이 작아야 하고 발허리와 묶어 쌀 때 쓴 천은 주악 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는, 당시 사회 최고 계층인 황궁에서도 纏足이 아주 유행하였다.”<sup>31)</sup> 위에서 말한 관점이 趙澱의 기록과 다른데 실제 상황은 과연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纏足은 여성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성이 인격적 자유가 없는 증거다. 유가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의 육체적 변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취미에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 환언하면,纏足은 기형적인 장식적 행위다. 이런 의미에서纏足도 복식 풍습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다.纏足の 근원은 예교이며 그의 생성 원인은 인간의 욕구, 여성들에 대한 속박, 남녀유별과 여성의 정절 유지 등에 있다.<sup>32)</sup> 陳寶良은纏足은 규수들에 집중되고 일반 부녀자들, 즉 鄉里姐는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纏足을 안할 수도 있으니 발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趙澱의 기록과 연결시켜 보면 위와 같은 陳寶良의 주장은 당시의 실제 상황과 맞다고 본다. 여성들에게 반드시纏足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을 것이다. 하층 여성들은纏足을 부러워해서纏足하려고 해도 신분, 지위와 경제 상황의 제한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명나라 때纏足으로 여성의 貴賤을 구별하기 때문에 천민 출신의 여성들은纏足하지 못하였다. 명나라 사람인 沈德符의 『萬曆野獲篇』에는 “浙東 지방에 丐戶가 있는데 丐戶 집의 남자는 서당에 못 다니고 여자는纏足을 못 한다.”<sup>34)</sup>라는 기록이 있다. ‘丐戶’집의 남자는 주로 閭巷에서 잡역을 하고 여자들은 대갓집에서 櫛工을 하는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다. 정

31) 高洪興(2007), 22쪽.

32) 梁惠娥 외 2인(2008), 108쪽.

33) 陳寶良(2010), 500쪽.

34)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24, 『風俗』, <丐戶>.

부에서는 丐戶집의 여자들의 纏足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纏足은 대갓집의 여성들만 독점한 장식으로 되었다. 이는 纏足이 평민들에게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는 뼈가 부서지도록 纏足하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崔溥의 『漂海錄』에서는 확실하게 纏足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양말 대신에 수건으로 발을 묶은 사람이 있다”<sup>35)</sup>라는 기록이 있다. 수건으로 발을 묶은 것은 纏足과 비슷한데 양말 대신으로 하는 것으로 보니까 본격적 纏足이 아니었을 것이다. ‘小中華’로 자부했던 조선에서 纏足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서 이런 형상을 보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 (3) 明末 복식 풍속에 대한 조선 사신들의 비평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사신들은 명나라 말기의 남녀들의 복식, 머리장식, 화장과 纏足을 여실히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朝天錄의 사료는 명나라의 복식과 여성에 관한 풍습을 연구하는 데 보조적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당시의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道袍가 남성 복식이 되었다는 것과 여성 상의는 길어졌다는 현상<sup>36)</sup>은 전통 예법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남녀 간에 완전히 다른 복장의 길이는 ‘地承天’, ‘專一德, 無所兼’, ‘天包地’라는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sup>37)</sup> 이는

35)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 598쪽.

36) 이런 현상은 명나라 範濂의 『雲間據目抄』, 권2, 『記風俗』에서도 기록돼 있다. 明世宗 嘉靖(1522~1566) 초기에 남자 복식은 “老者上長下短, 少者上短下長, 自後漸易兩平”, 明神宗 萬曆(1573~1620년) 이후, “皆用道袍, 而古者皆用陽明衣, 乃其心好異, 非好古也”. 여자 복식은 “衣用三領窄袖, 長三尺餘, 如男人穿褶, 僅露裙二三寸”.

37) 閔晶 외 2인(2007), 46쪽. ‘地承天’은 즉 여자복식은 上衣는 허리까지 길고 下裳은 상의과 접한 것이다. ‘專一德, 無所兼’은 즉 여자복식은 상의와 하상의 색깔이 같다. ‘天包地’는 즉 남자복식은 상의는 하의를 가려야 되는 것이다.

전통 윤리 도덕이 도전을 받게 되어 점차 타파되었다는 증거이며 명나라 말기 상업 경제의 발전으로 초래된 필연적 결과이고, 또한 사회 전환기가 복식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명나라 복식에 대해서 조선 사신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복식이 지극히 화려하고 밝다는 인식이다. 당시 사회에는 일반 평민 내지 천민 계층도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풍습이 있다. 둘째는 당시의 복식 풍습은 조선 사람이 알았던 재래 복식 제도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다. 우선,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풍습은 앞에서 언급한 趙澱의 기록에 “養漢者들은 잘 빗은 머리에는 늘 꽃을 꽂았으며 옷 빛깔은 선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다 되었어도 얼굴에 연지와 분을 발랐으며 발에 신는 버선과 종아리에 매는 行纏은 색이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趙澱 일행은 濟南 趵突泉에서 물을 길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옷 빛깔이 곱고 머리장식과 화장도 잘하여 예쁘니까 譯官들이 서로 다투어 농담을 걸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여 비틀거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터 쓰러지자 물동이가 쏟아져 옷을 버렸다. 아마도 그 여자는 훌륭한 집안의 딸이지, 그저 養漢者는 아닌 듯했다.”<sup>38)</sup>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녀는 양가녀이지만 복식은 화려하고 차림새도 단정하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趙澱 일행은 배로 安陵에 오다가 술을 사러 나갔는데 한 여자를 만났다. “열대여섯 살쯤 되는 처녀가 이제 막 문발을 건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 처녀의 아리따게 꾸민 얼굴에는 달 같은 보조개가 패었고, 별빛 같이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sup>39)</sup> 이를 통해서 여자는 화장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문상 갈 때에도 화장을 할 정도였다. 趙澱은 조선으로 돌아가

38)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02쪽.

39)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09쪽.

는 도중에 靑州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상례를 지내는 사람을 만났다. 여자들은 하얀 모자에 하얀 옷을 입었지만 화장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고 꽃을 꽂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는 중원 지방의 풍습은 원래 그랬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중국의 여자들은 아무리 늙어서 육십이 되어도 반드시 연지분을 바르고 꽃을 꽂고 다니기 때문에 상을 당하여도 얼굴에 분칠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듯하다.”<sup>40)</sup>

명나라 말기의 복식 풍습이 엄격한 재래 제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조선 사신들은 많이 보고 들어서 기록하였다. 崔溥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강남 지방 사람의 복식은 넓고 까만색의 저고리와 바지가 그 기본이다. 비단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이다.”<sup>41)</sup> 대부분의 襦袴는 비단으로 만들어지고 옷감이 정교하다. 安璫(1564~1640)이 1621년에 서장관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와 長山縣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사족이라고 자처한 오륙 무리가 있어 의복이 화려하였는데 찾아와 보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란색 두건을 쓰고 푸른 紗袍를 입는 자가 좌중에 있었다. 내가 ‘존공의 복색이 어째서 이러합니까?’라고 묻자, 그 사람이 글로 써서 답하기를 ‘어머니 상 때문에 이처럼 입었습니다.’고 하였다. 安璫은 그의 상복이 예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여 ‘존공의 상복이 예법과 크게 어긋난 듯한데, 감히 이유를 묻습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하직 인사도 않고 그냥 떠나 버렸다.’”<sup>42)</sup> 중국 국내의 자료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명나라 嘉靖(1522~1566) 이후 山東 博平縣에서는 서민, 장사하는 사람, 노예, 走卒들까지도 사대부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鄆城縣의 사람들은 “사치를 숭상하고 평민들은 사족의 옷을 입고 사족은 관리의 옷을 입는다.”<sup>43)</sup> 위와 같은 자료는 명나라 후기 복식의 변천을 보여

40)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423~424쪽.

41)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 597~598쪽.

42) 林基中, 『燕行錄續集』, 권104, 267쪽.

주고 있다. 옷감은 저렴하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비싸고 화려한 것으로, 색깔은 연하고 단조로운 것에서부터 복잡하고 화려한 것으로 변화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유행을 쫓고 복식 풍습은 예법에 많이 어긋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나라를 세운 후 朱元璋은 일련의 복식 제도를 제정하였다. 엄격한 규칙은 명나라 초기의 엄한 정치 체계와 질서 정연한 복식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복식 제도는 남녀의 차별, 貴賤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참람할 수 없다.”<sup>44)</sup> 그래서 귀족이든 서민이든 복식 규칙을 마음대로 어길 수가 없었다. 명나라 초기에 엄격한 복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통치 계급과 일반 백성들의 신분 차별을 규정했다고 하면, 명나라 중엽 이후부터는 상품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 풍습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사상도 초기의 도덕과 예법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복식의 질적, 양식적 변화 이외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옷차림의 참람함이었다. 조선 사신들의 朝天錄에서는 여성들의 복식은 매우 화려하고 옷감도 비싸고 복식 모양도 다양해지고 당시 보편화된 양식 밖에 규칙에 어긋난 복식 양식도 나타났다고 기록하였다. 남녀 복식의 길이 변화, 左衽 양식의 옷의 출현 등은 다 유교의 예법을 어겼다는 증거이다. 전통적 복식 제도는 도전을 받고 공식적 복식 금령도 그 효과를 잃었다. 복식 풍습은 새로운 변화를 나타냈는데 복식 예법에 참람한 풍조, 胡風을 숭상하는 것, 사치스러운 것에 대한 추구, 괴상망측한 옷차림(服妖) 등이 그 예이다.<sup>45)</sup> 심지어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 상복도 사람들이 사치를 추구하느라고 그 본분을 망각하였다. 安璫은 그의 『駕海朝天錄』에

43) 滕新才·劉秀蘭(2000), 133쪽.

44) 『朝鮮世祖實錄』, 권3, 世祖二年(1456年, 明景泰七年) 3월 28일.

45) ‘服妖’는 남녀의 옷차림이 서로 어긋남을 가리키기도 하고 각종 괴상망측한 옷차림을 가리키기도 한다. 陳寶良(2004), 205쪽; 牛犁·崔榮榮·高衛東(2013) 참조.

서 다음과 같은 시로 당시 혼란스러운 복식 풍습을 묘사하였다.

누런 모자는 시골 평민들이 쓰는 것인데 거상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의는 성현들이 갖추는 것이고 夷狄은 諸夏를 따른다. 오늘날 함부로 옷을 입는 것을 보니 헛갈리게 된다. 檜詩에서 말하는 거상하는 자가 백의를 입어야 하는 예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한 옷을 입는 자는 齊東野人인가?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천하를 바꾸겠는가? 시골 사람이 금의를 입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이다. 인간은 예법을 배우지 않으면 소나 말과 같다. 衰麻를 입지 않고 오히려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하니 그 사람의 이마에 진땀을 흘렸다. 성현들이 만든 법제는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sup>46)</sup>

조선이 중국의 예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전승하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은 다 예의지국이라고 安璫은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국의 복식이 衰衣麻經이 黃紗巾碧紗袍로 변한 사실을 목격하고 부끄러워하는 동시에 성인들이 제정한 예법의 파괴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와서 전통적 윤리도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통 예법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사치를 추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복식 풍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신들은 중국과 조선의 복식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趙澱 일행은 安陵에서 어느 술집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딱 보니 선녀인 것 같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못 만날 것을 생각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생각하매 서운한 감정을 씻을 수 없었다.”고 해서 그녀를 “齊나라 땅 천여리를 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보는 드문 미인이며 國色이다”라고 생각하였다.<sup>47)</sup> 그날 밤에 趙澱 일행은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서장관과 역관들을 데리고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46) 林基中, 『燕行錄續集』, 권104, 268쪽.

47)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09~310쪽.

하였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중국 여자들이 옷차림이 아름답고 행동에 법도가 있는데다가 우리들이 처음 이 나라 문물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얼굴에 화장을 요란하게 하여 멀리 바라보면 아주 아름다운 듯하지만 실체는 우리나라 여인들만 못한다.” 趙澱은 “그러는 그의 말도 그럴 듯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본 그 여인은 참으로 미인이었다”하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만일 저 중국 사람이 입는 그 옷을 우리나라의 젊은 여인에게 입힌다면 아침에 그 여자보다 훨씬 예쁠 것이구먼요.”<sup>48)</sup>라고 하였다. 조선 사신들은 조선의 여자들이 훨씬 더 예쁘다고 그들이 天朝의 옷을 입어 보면 天朝의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옛말 옷이 날개라고 하듯이 이는 天朝 복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부 사신들이 명나라를 天朝上國으로 여겼던 의식의 변화를 나타냈다. 조선 사신들이 명나라 복식을 극찬하는 동시에 조선의 여자들이 명나라의 복식을 차려입으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주장을 통해서 당시 일부 사신들의 중국관은 이미 흔들리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더 이상 맹목적인 慕華를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3. 조선 사신들이 기록한 경제생산의 풍속

앞에서 언급한 명나라 말기 복식 제도의 파괴는 사회상이 복식에 나타난 것이고 명나라 말기 상품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생산은 물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그 생산방식은 시대성과 사회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 때의 중국은 전통적 농업 사회이며 이에 해당하는 농업 생산 풍속도 조성하였다. 경제의 발전과 상업화,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명나라 중엽에 와서 棄農就賈의 풍조가 나타나고

48)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10~311쪽.

경제 생산에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배금 풍조가 유행하였다.<sup>49)</sup> 이러한 경제 생산 풍습의 다양성은 朝天錄에 잘 나타나 있다.

### (1) 買賣興利爲上: 상업의 유행

조선 사신들이 기록한 대로 당시 중원 지방의 상품 경제는 매우 발달했고 상업을 우위에 두고 농업과 수공업은 그의 아래에 두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냈다. 당시 사회의 위와 같은 변화를 趙澱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중국의 풍속은 대강 이러하였다. 곧 그들은 물품을 팔고 사는 장사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최고로 삼고, 농사나 공업을 그 다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는 文人이나 높은 벼슬길에 있는 자라도 장사하는 일에 뜻을 가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는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 전성기를 누렸지만 농사나 공업을 가지고는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으므로 장사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과연 장사는 배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sup>50)</sup>

趙澱의 기록에 의하면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되고 반면에 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이득이 곱절이나 된다. 그래서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문인 사대부들조차도 상업을 중요시하였다. 趙澱의 기록은 명나라 말기 山東 지방의 풍속과 대충 맞는다고 본다. 기타 朝天錄에도 위와 비슷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 무역 풍속은 朝天錄의 경제 생산 풍속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의 농업은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순한 곡물 재배뿐만 아니라 과수와 뽕나무 등 경제 작물을 재배하였다. 重本抑末, 農貴賤商은 중국의 전

49) 林希元, 『林次崖先生集』卷2. “今天下之民, 從事於商賈技藝, 遊手遊食者, 十而五六.”

50) 林基中, 『燕行錄續集』, 권12, 328쪽.

통이기 때문에 명나라 초기에도 상인과 상업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였지만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따라 명나라의 상업은 날로 발전하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에 와서 상업은 더욱 번영하여 새로운 사회 풍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趙澱 일행은 靑州府에서 어느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의 주인은 趙御使였다.

이 집은 趙御使舖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이 어사 벼슬을 한 모양이나 술을 파는 것으로 본업을 삼아 벽에 가득 쌓인 누룩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다. 중국 사람의 풍속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생계를 삼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관리나 큰 벼슬아치들도 이러한 풍습을 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손님 받는 점포를 길가에 세우고 집안의 젊은이들을 시켜 장사를 하게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고 했다. 참으로 『시경』에 이르는 바와 같이, 장사는 삼배의 이익을 가진다(如賈三倍者)는 뜻과 같다. 또 문의 양쪽에 立春帖을 써 붙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술이라는 열쇠로 눈썹 사이에 잠긴 자물쇠를 열어서(常將酒鑰開眉鎖), 근심이라는 북(베짜는 기구)이 귀밑머리를 하얀 실로 베 짜듯하지 못하게 하라(莫把愁梭織鬢絲).’ 참으로 술집에 어울리는 시구였다.<sup>51)</sup>

인용문에서 나온 술집의 주인은 趙御使이다. 물론 그가 아닌 그의 집 하인들이 이 술집을 경영하였다. 『詩·大雅』에서는 “如賈三倍, 君子是識.”이라고 하였다. 환언하면 상업의 이익이 많으면 상층 관리들까지도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상인과 상업에 대한 당시 사람의 태도는 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 준다. 통치자들은 重農抑商을 함으로써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였지만 상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어느 시대에 들어와서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는 바로 상업이 급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였다. 교

51)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296쪽.

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업이 더욱 잘 발전되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은 바로 市肆이다. 市肆는 상업가이며 가게와 노점 가게로 이루어진 물품 교환의 장소이다.<sup>52)</sup> 명나라 말기 山東지방 市肆의 번창은 조선 사신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를 기록하게 하였다.

朝天錄에서 기록한 상업 무역이 아주 번창한 대표적 도시는 登州, 濟南과 德州였다. 명나라 때 山東布政司 산하에는 6개의 府가 있었다. 경제 특색과 지리적 위치로 보면 山東의 무역 구역은 東區와 西區 두 지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靑州, 萊州와 登州 3개의 府와 서부 운하 일대의 濟南, 兗州와 東昌 3개의 府는 이른바 東三府와 西三府였다. 중요한 항구인 登州는 해금으로 상업의 발전은 제한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무역과 상업에 하는 사람은 적지 않았고 특히 명나라 嘉靖 중엽 이후 더욱 그랬다.<sup>53)</sup> 德州와 濟南은 운하 연안에 위치하고 濟南은 성도로 상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좋은 교통 조건과 소비자 군을 가지고 있었다. 德州는 화물의 생산과 집산지였다.

## (2) 山東第一州: 登州

조선 사신 李德澗(1566~1645, 1624년에 중국 사행했음)은 登州를 ‘바닷가에 있는 거대한 고을’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기록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밤에 登州 수문에 정박하였다. 登州는 고대 夷國에 속한 곳이다. 성에 햇빛에 반짝이는 누각이 있고 아름다운 성첩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성내에 市肆가 있고 집집마다 문발이 서로 마주본다. 비단이 쌓여 있고 희귀한 화물

52) 趙興元(2007), 64쪽.

53) 成淑君(2005), 38쪽.

이 많다. 간혹 청루가 보여 화장을 하고 미소를 띤 여자들이 빈객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도 많고 물자도 많아 무척 화려한 登州는 참으로 바닷가에 있는 雄藩巨鎮이다.<sup>54)</sup>

李德洞은 登州의 번창한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였다. “市肆가 있고 문발이 서로 마주보고 비단이 쌓여 있고 희귀한 화물이 많다. 간혹 청루가 보여 화장을 하고 미소를 띤 여자들은 빈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묘사를 통해서 당시 登州의 번창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해금은 登州의 발전을 억제하지 못했고 바다 위의 개인 무역을 발달하였으며 登州는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金尙憲(1570~1652)은 登州에 많은 상인들과 왕래하는 선박이 머무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성내의 태평성세는 양주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시를 지었다.

남쪽 상인 북쪽 길손 모래밭에 모여 들었는데, 화익에다 푸른 주렴 어디서들 온 배인가. 죽지곡 부르며 소매잡고 가는데, 성안 가득 달빛 차니 양주 땅과 흡사하네.	南商北客簇沙頭 畫鷁青簾幾處舟 齊唱竹枝連袂過 滿城明月似揚州 <sup>55)</sup>
---	---

李民宥는 登州에 와서 「登州詠懷」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서 그는 登州를 ‘山東第一州’라고 극찬하였다.

모란 장식 배에 몸을 싣고 멀리서 온 시인, 산동성 일번지에 돛을 내렸다. 매서운 가을바람 불쌍한 소계자를 비웃지만, 목릉관 밖에서 갓웃이 닳은 몸이거늘.	騷人遙倚木蘭舟 落帆山東第一州 笑殺秋風蘇季子 穆陵關外弊貂裘 <sup>56)</sup>
---	---

54) 李德洞, 『朝天錄』, 1624년 8월 23일.

55) 金尙憲, 『朝天錄』, 「登州·次去非韻」.

56) 李民宥, 『燕槎唱酬集』上.

登州를 ‘山東第一州’라 함은 당시 조선 사신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중국 도시가 登州였기 때문이다. 위의 시가들은 登州가 山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登州는 동남쪽에 위치하는 6개 府 중의 하나이며 사방에 왕래하는 선박은 수문을 통해 登州에 드나들었다. 당시 登州의 번창함이 京畿 지역과 비교하면 永平府에 버금갈 정도였음은 李民歲의 시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성곽은 든든하고 누각이 즐비하다. 市肆가 많고 도처에 화물이 쌓여 있다. 술 냄새, 차의 향기는 자욱하다. 성 안에 사대부와 양반들의 집의 牌樓는 서로 마주본다. 사람과 물자가 많아서 永平府와 비견할 만하다.<sup>57)</sup>

### (3) 山東之首: 濟南

사신들은 登州를 떠나 서쪽으로 가다가 濟南에 도착하였다. 濟南은 山東布政司와 濟南府의 소재지이며 山東省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였다. 濟南에는 舜廟, 歷山書院, 華不注山과 大明湖 등 명승고적이 있다. 명나라 때의 濟南은 경제가 발달하여 유명한 상업 도시가 되었다. 濟南을 지나간 조선 사신들은 그의 깊은 문화 전통과 장려한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洪翼漢(1586~1637)은 다음 글에서 濟南에 대한 인상을 기록하였다.

성곽, 인물의 변화한 것과 第宅, 牌樓 많은 것이 山東에서 으뜸이고, 성 밖에는 점포가 수십 리나 뻗어 있어 오가는 거마가 길을 메웠다. 靑樓와 주점이 좌우에 즐비하고 절색 미인으로 거리에서 웃음을 파는 자 또한 때를 이루었으니, 예로부터 천하의 府庫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헛말이 아니었다.<sup>58)</sup>

57)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4, 335쪽.

58)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7, 177~178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규모나 인구수나 濟南은 당시 山東省의 1위인 도시였다. 성 밖에 수십 리나 늘어나 가게들과 도로에서 왕래하는 사람과 수레들, 즐비한 술집과 기생집 등은 濟南은 당시 북방 지역에서 으뜸 도시였음을 보여 주었다. 李德澗이 “번화하고 부유하여 북방 지역의 으뜸이다”<sup>59)</sup>고 감탄할 만큼 濟南은 번창한 곳이었다. 다음의 시는 李德澗의 느낌을 보여준다.

황제 계신 땅을 맞닿은 경치 수려한 번방	形勝名藩控帝畿
용마루 이어진 훌륭한 집들마다 붉은 대문이라네.	連甍甲第敞丹扉
황금이며 비단이 그득한 시장엔 구름 노을 같은 채색비단	金繒積市云霞纈
남자들 여자들 거리를 메우며 구슬땀을 흘리네.	士女填街汗雨揮
總督營 앞엔 칼과 창이 가지런하고	總督營前排劔戟
친왕의 궁전엔 진주와 붉은 비단 즐비하네.	親王殿里列珠緋
자고로 산둥은 번창한 곳이지만	山東自是繁華地
오늘날 같은 태평성세 보기 드물었다네.	今日升平古亦稀 <sup>60)</sup>

위의 시의 1연은 濟南의 지리적인 중요성과 그 기세를 보여 주었다. 濟南의 지리 위치는 중요하고 京都를 드나드는 지방의 요지이며 성 안에는 양반 귀족의 집은 대홍의 문을 연다. 2연은 번창한 濟南의 풍경을 보여준다. 시장에 황금과 아름다운 견직물이 쌓여 있고 길거리에 남녀들은 왕래한다. 3연은 濟南의 위엄한 기세를 설명한다. 總督營 앞에 훌륭한 수위들이 있고 親王殿에 보석이 많다. 4연은 사신의 느낌을 말한다. 山東 지방은 자고로 번화한 곳이지만 지금과 같은 성황은 전에 보기 드물었던 것이다.

59) 李德澗, 『朝天錄』, 1624년 9월 28일.

60) 상계서.

## (4) 勝於濟南：德州

趙濶은 濟南의 “물자가 다른 고을에 비하여 가장 풍족하다.”<sup>61)</sup>고 하였지만 德州에서 왕래하는 선박이 많고 市肆에 화물이 쌓여 있는 변화한 풍경을 보고 나서 “이 고을은 사람이나 물자가 풍부하여 저 濟南보다 더욱 번창하였다”<sup>62)</sup>라고 말을 바꾸었다. 德州는 운하 연안에 있는 요지이며 중원과 남방 지역에서 북경으로 식량 등 물자를 운수하는 집산지이자 九達天衢라는 칭찬을 받아 濟南보다 한 술 더 뜬 고을이었다. 그래서 명나라 말기 德州의 工商業은 발달하고 도시 생활도 번창하는 지역이 되었다.

申悅道(1589~1659)는 그의 사행에서 德州를 남북 교통의 요지라고 하여 “상인들이 모여들고 수레와 말들이 많다. 성곽이 웅장하고 물자도 풍부하다. 市肆가 萊州보다 몇 배나 번창하고 濟南과 비견할 만하다”<sup>63)</sup>고 말하였다. 당시 도시의 규모, 인구수와 물자, 市肆의 번창함 등 여러 측면에서 보면 德州는 登州와 萊州보다 한 술 더 떠서 濟南에 비견할 만한 도시라고 申悅道는 주장하였다.

安墩은 德州에는 남경과 북경을 연결하는 通渠(즉 대운하)가 있고 선박이 운하를 드나들어 연안에 누각이 즐비하며 市肆도 번창하고 왕래하는 빈객이 많아 아주 부유하고 변화한 도시라고 하였다.

남쪽으로 올라온 通渠는 德州를 지나간다. 남쪽으로 남경, 북쪽으로 북경을 연결시키는 대운하는 바다로 흘러간다. 남경과 북경 사이가 몇천 리의 긴 거리인지 모른다. 공적인 배나 사적인 배는 운하를 왕래한다. 연안에 관공서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누각들이 즐비하다. 물자가 풍부하고 술집과 다방이 많다. 빈객이 왕래하고 기생들도 많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번창한 고을이다.<sup>64)</sup>

61)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02쪽.

62) 林基中, 『燕行錄全集』, 권12, 305쪽.

63) 申悅道, 『朝天時聞見事件啓』, 1628년 10월 27일.

위와 같은 사신들이 기록하는 운하 연안의 德州의 번창함을 통해서 당시 남경과 북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埠頭로 德州에는 상업적 분위기가 흘러넘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사신들은 德州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북경에 갔다. 歲幣와 方物은 마차에서 배로 옮겨서 북경으로 운수하기 때문이었다. 德州에서 머무르는 동안 사신들은 항상 시로 德州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읊었다. 우선 金尙憲(1570~1652)의 시 「德州」를 살펴보자.

황하의 물 한 줄기 성을 감싸 흐르는데	黃河一派繞城流
물 양쪽의 수양버들 그림 누각 비치누나.	夾岸垂楊映畫樓
유주 계주 잇닿아서 백성 풍속 깨끗하고	幽薊地連民俗勤
강주 회주 물화 모여 시장통은 복잡하네.	江淮貨集市塵稠
일천 집에 켜 등불은 다듬이질하는 거고	千家燈火秋砧夜
만 리 길 온 돛단배는 장사꾼의 배로구나.	萬里風帆佔客舟
삼진 땅은 예로부터 호걸 험객 살던 데라	三晉古來豪俠地
지금에도 젊은이들 제 마음껏 노니누나.	至今年少盛遨遊 <sup>65)</sup>

주지하다시피 교통은 경제 발전의 명맥이다. 편리한 운하 교통은 德州의 무역 발전을 촉진시켰다. 德州는 연안의 풍경이 수려하고 술집과 다방이 많고 왕래한 사람들도 많아 번창한 태평성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운하에 화려한 선박들이 줄을 지어 있어서 내왕이 빈번하였다. 그중에서 사대부들이 타는 화려하고 다층으로 된 官船도 있고 대형 운수선인 馬船도 있다. 官船에는 분위기를 돋우는 미녀들까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감을 느끼게 하였다. 李民晟은 물자가 풍부하고 市肆가 번창한 德州의 모습을 “萊州와 登州보다 훨씬 좋다”고 칭찬하였다.<sup>66)</sup>

64) 林基中, 『燕行錄續集』, 권104, 179쪽.

65) 金尙憲, 『淸陰集』, 권9, 「德州」.

서장관 金地粹(1581~1639)은 漕河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그의 시가 『德州河上』은 4수로 되어 있는 연시인데 시에서 德州와 漕河 연안의 풍경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漕河 연안의 萬家粧閣과 十里香風을 찬미하여 사람들이 德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음을 묘사하였다.

수만 개 기루, 물안개에 문을 여니,	萬家粧閣水烟開
십 리의 향기로운 바람, 군영을 재촉하는 노래로다.	十里香風歌營催
누런 적삼을 입고 백마 탄 협객들은	白馬黃衫游俠客
성의 남쪽, 북쪽 쏘다니며 돌아올 줄을 모르네.	城南城北不知回 <sup>67)</sup>

둘째 시는 漕河에서 선박이 왕래하는 분명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만 리 길 뻗은 조하는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東南萬里漕河通
강물 연안 유명한 고장들, 지세도 웅장하구나.	河上名州地理雄
비단 같은 닻줄과 상아빛 돛대, 왕래하는 곳마다	錦纜牙檣來往處
옥창과 주렴들이 물빛에 반짝이네.	玉窓珠箔水光中 <sup>68)</sup>

셋째 시와 넷째 시는 德州에 술집과 기생집이 많은 것을 보여 주고 태평성세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셋째 시는 다음과 같다.

성곽에 기대 숨은 듯한 청루들 문이 열리자	青樓隱隱倚成(城)開
가을밤 차디찬 다듬이질 소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네.	秋夜寒聲砧杵催
천막 속 심부름꾼 아이는 지는 달에 경황이 없어지고	帳底侍兒驚月落

66) 李民宥, 『癸亥朝天錄』, 1623년 7월 15일.

67) 金地粹, 『苔川集』, 권2, 『德州河上』.

68) 金地粹, 『苔川集』, 권2, 『德州河上』.

문발 사이 들려오는 앵무새 소리, 서리 내린다고 하네. 簾間鸚鵡報霜來<sup>69)</sup>

넷째 시는 다음과 같다.

해 지고 바람 그쳐 물안개 아름다운데	日斜風歇媚烟波
깊은 밤 남방의 노랫가락 강을 따라 휘감도네.	子夜吳歌逸一河
입추 지나 남경에 돌아간다는 손님들	秋后秣陵歸去客
술집 누각 아래엔 매어놓은 배들이 뺑뺑하네.	酒家樓下系船多 <sup>70)</sup>

登州, 濟南과 德州 등 대도시 외에 조선 사신들은 章丘, 禹城, 吳哥店, 黃哥店 등 지역에서 규모가 작은 市肆를 보았다. 金尙憲은 『長山縣東界·鋪店甚盛』에서 長山縣에 술집과 다방이 수천 개가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문 앞에는 푸른 물이 금빛 모래 감싸 돌고	門前綠水繞金沙
물가에 선 누대에는 석양빛이 기울었네.	臨水樓台日正斜
하얀 연기 깔리면서 붉은 나무 덮은 속에	掩映白烟紅樹里
술집 깃발 차집 팻말 걸린 집이 몇 천이네.	酒旗茶榜几千家 <sup>71)</sup>

吳允謙(1559~1636)은 黃縣에서 黃縣驛에 가는 도중에 “십 리나 이십 리 정도 되는 길거리에 店鋪와 市肆가 있다”<sup>72)</sup>고 기록하였다. 金德承(1595~1658)은 章丘縣에서 “다리에 돌난간이 있고 아래에 6개의 문이 있다. 선박이 왕래하고 다리에 시장이 열려 물자가 많다”<sup>73)</sup>고 하고, 禹城縣

69) 金地粹, 『苔川集』, 권2, 『德州河上』.

70) 金地粹, 『苔川集』, 권2, 『德州河上』.

71) 金尙憲, 『清陰集』, 권9, 『長山縣東界, 鋪店甚盛』.

72) 吳允謙, 『海槎朝天日錄』. 1622년 6월 8일.

73) 金德承, 『天槎大觀』, 1624년, 『章丘縣』.

에 도착한 후 禹城의 다리에서는 “양쪽에 집과 市肆가 있고 푸른 문밭과 대문은 소박한 풍경을 보여 주었다. 전에 지났던 곳에 비하면 사람과 물자가 많다”<sup>74)</sup>고 기록하였다. 安瓚 역시 “吳哥店, 黃哥店의 시장에 물자가 많다”<sup>75)</sup>고 기록하였다. 이런 市肆들은 교통 요로나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는 다리에서 열리곤 했는데 당시 山東 지역의 상품 경제의 발전을 보여준다. 조선 사신들이 山東의 市肆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조선 市肆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15세기 초 조선에서는 市廛 제도를 실시하였다. 市廛이라고 함은 봉건적 국가에 기생하는 御用 상업 형식이다. 봉건 귀족들이 市廛을 독점하였지만 각 지방에서 민간의 市肆들이 슬며시 발전하게 되었다. 16세기 말에 와서 市肆는 京畿, 忠淸, 慶尙道 등 중부와 남부의 지역에 보편화되었다.<sup>76)</sup> 조선에 市肆가 있기는 하지만 그의 규모나 번창함은 중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 편이었다. 이것은 조선 사신들이 중국의 市肆에 관심을 두고 그의 번창함을 칭찬하는 이유이었을 것이다.

#### 4. 결론

17세기 초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행길이 女眞으로 인해 차단되자 조선 사신들은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山東의 登州--萊州--靑州--濟南--德州 등 지역을 지나면서 보고 느낀 것을 朝天日記와 漢詩를 통해 기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그들 눈에 비친 명나라 말기 山東 지방의 사회풍속을 보여주었으니 당시 山東의 사회풍속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74) 金德承, 『天槎大觀』, 1624년, 『禹城縣』.

75) 安瓚, 『駕海朝天錄』, 1621년 7월 15일.

76) 趙興元(2007), 66쪽.

海路朝天錄과 한시 분석을 통해서 명나라 말기 山東의 경제 생산 풍속에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풍조 측면으로 보면 엄격한 예법 때문에 민풍이 순박한 명나라 초기에 비해 말기에 와서는 참람하고 사치스러운 풍조가 유행하였다. 또한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農本商末이라는 전통 관념과 엄격한 등급제도 및 도덕 윤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다.

명나라 중·후기 상품경제의 발전과 변창에 따라 상업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상인들의 사회 지위도 높아져서 전통적인 본말 관념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상업이 발전된 고을에는 市肆가 많고 문인 사대부들까지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빠서 배급 풍조가 유행하였다. 사회 지위가 낮았던 상인 계층은 예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느라 예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였다. 사람들의 복식 풍속도 초기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하였다. 새롭고 사치스러운 모양을 추구하느라 貴賤이 유별했던 복식 예법에 어긋난 풍조가 사회 각 계층에 보편화되었다. 결국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엄격한 복식 예법은 흔들리게 되었는데 左衽과 道袍의 유행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사회 각 계층, 특히 서민들은 사치스러운 복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복식은 창기들의 것과 비슷할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되고 상례를 치르는 사람들조차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였다. 이외에는 상품경제의 변창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養漢者’, ‘纏足’ 등 속된 풍조가 만연하고 술집과 청루도 많아졌다. 본고에서는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명나라 말기의 사회풍속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미 계급과 貴賤을 구별하는 복식 예법에 개의치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사치스러움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 측면에서 사회 전환기에 처한 명나라 말기의 사회생활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 사신들이 지은 朝天錄을 통해 상품경제의 발전과 사람들의 미학

적 관념에 따라 명나라 말기 山東 지역의 사회 풍속이 많이 변하고 새로운 복식 풍조를 나타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이런 변화들과 예법이 받은 교란에 대해 당혹하고 우려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사신들이 齊魯故國의 미풍양속을 그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들의 자의식이 강해지고 小中華의 시각으로 명나라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 눈에 비친 天朝인 명나라는 점차 그 빛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金景善, 『燕轅直指』.

金德承, 『天槎大觀』.

金尙憲, 『朝天錄』.

李壘, 『松窩雜說』.

李德洞, 『朝天錄』.

李民宥, 『癸亥朝天錄』.

\_\_\_\_\_, 『燕槎唱酬集』.

範濂, 『雲間據目抄』.

申悅道, 『朝天時聞見事件啓』.

申欽, 『象村稿』.

安瓚, 『駕海朝天錄』.

吳允謙, 『海槎朝天日錄』.

李晬光, 『芝峯類說』.

林基中, 『燕行錄續集』, 서울:尙書院, 2008.

\_\_\_\_\_, 『燕行錄全集』, 서울: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趙澥 원저, 최강현 역주, 『계해수로조천록』, 新星出版社, 2000.

\_\_\_\_\_, 『燕行錄』.

崔溥, 『錦南先生漂海錄』.

沈德符, 『萬曆野獲編』.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

『十三經注疏·禮記正義』.  
『朝鮮世祖實錄』.

- 정은주, 「조선시대 명청사행 관련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은정, 「甲子(1624年)航海朝天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권력래,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등주(登州)」, 『국어국문학』154호, 국어국문학회, 2010.
-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對明 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한국실학연구』21, 한국실학학회, 2011.
- 임기중, 「水路燕行錄과 水路燕行圖」, 『한국어문학연구』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_\_\_\_\_, 「航海朝天圖의 형성양상과 원본비정: 李德涇 가문의 항해일기와 관련하여」, 『한국어문학연구』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 정은주, 「明清交替期 對明 海路使行記錄畫 研究」, 『명청사연구』27, 명청사학회, 2007.

- 耿升·劉鳳鳴·張守祿, 『登州與海上絲綢之路』, 北京:人民出版社, 2009.
-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北京:商務印書館, 1997.
- 高洪興, 『中國社會風俗史叢書·纏足史』, 上海:上海文藝出版社, 2007.
- 滕新才·劉秀蘭, 「明朝中後期服飾文化特征探析」,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
- 梁惠娥·翟晶晶·崔榮榮, 「從纏足透析我國傳統文化的思想要素」, 『紡織學報』29, 2008.
- 劉曉東, 「明末朝鮮使臣在登州的詩歌唱和」,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 2013.
- 李學堂, 「李民宥의山東貢道文化之旅」, 『濱州學院學報』2, 2013.
- 成淑君, 「交通貿易與明代山東土地開發」, 『史學月刊』8, 2005.
- 孫衛國, 「朝鮮入明海上貢道考」, 『韓國學論文集』17, 2009.
- 葉泉宏, 「航海朝天錄-朝鮮王朝事大使行的艱辛見證」, 『東吳歷史學報』10, 2003.
- 王玲玲, 「明代朝鮮使臣登州詩歌研究」, 魯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王統斌, 「曆代漢族左衽服裝流變探究及其啓示」, 江南大學 設計藝術學 碩士學位論文, 2011.

- 牛犁·崔榮榮·高衛東, 『明代中晚期·服妖·風俗考』, 『服飾導刊』3, 2013.
- 趙興元, 『康乾時期燕行使眼中的中國北方市肆』, 『東北史地』3, 2007.
-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 『中國婦女通史·明代卷』, 杭州:杭州出版社, 2010.
- 陳尙勝, 『登州港與中韓交流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山東大學出版社, 2005.
- 崔菊花, 『明代登州在中朝交往中的重要作用』, 魯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竺小恩, 『大唐服飾文化對統一新羅服飾的影響』, 『浙江紡織服裝職業技術學院學報』4, 2013.
- 胡申生, 『社會風俗三百題』,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2.
- 黃修志, 『朝鮮全混『槎行錄』版本考辨及史料價值論述』, 『古籍整理研究學刊』5, 2011.
- 閔晶·仇華美·尹利琴, 『中國明朝服飾文化探析』, 『東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7, 2007.

투고일 2014. 9. 25 심사시작일 2014. 11. 10 심사완료일 2014. 11. 25

*Abstract*

Shandong Social Custom in the Late *Ming Dynasty*  
in the Eyes of *Joseon* Envoys  
-Using Their Travel Notes and Chinese Poetry for Text

Liu, Bao-quan · Shao, Shuang-shuang

In the late *Ming Dynasty*, the *Joseon* Dynasty envoys made their pilgrimage to *Beijing* by sea and through *Shandong*, with their “travel notes” presenting a faithful account of clothing, headdress, makeup, and foot-binding at that time. In that record, the *Ming Dynasty* clothing was of extreme floridity and extravagance, as the changes in the length of clothing and popularity in the “left lapel” style breaking the Confucian ethical code. With the official clothing restrictions in the early *Ming Dynasty* losing its influence, there emerged an increasingly intensified phenomenon featuring the arrogation of the clothing custom and the advocacy of the “Northern style”, beauty and luxury. The *Joseon* envoys made comparisons between these phenomena and their national clothing culture, leading to a change in the notion that the clothing system of the *Ming Dynasty* was on the brink of collapse.

The economic production custom was characterized by diversity in *Shandong* in the late *Ming Dynasty*, featuring the commercial prosperity, money worship and rampant pursuit of commercial profits among scholars, celebrities and high-ranking officials. Markets, taverns, and brothels could be found everywhere in cities like *Dengzhou*, *Jinan* and *Dezhou*. The social climate took on a scenario of prosperity and virtuous custom, while the traditional ethics were under violent strike. Under a social climate of this kind, the traditional clothing etiquette was destroyed. Therefore, the change in the clothing custom and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y were inextricably fused.

**Keyword** *Ming Dynasty*, *Joseon* envoys, envoy’s record, *Shandong*, clothing custom, material folk culture.

### <부록>

명나라 말기 山東과 北京 지역의 驛路 노선도

(출처: 楊正泰, 『明代驛站考(增訂本)』, 上海古籍出版社, 2006, 119쪽;113쪽.)



